

“불성 여래장도 고정적 실체가 없다”

도르지 왕축 교수, 제6회 인도 티벳 사상 초청강연회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학국연구센터는 9월 3일 금강대 본관에서 제6회 '인도 티벳 불교의 불성과 여래장 사상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함부르크대 티벳불교 전공자 도르지 왕축(Dorji Wangchuk) 교수를 초청해 불성과 여래장 사상에 대해 강연했다.

불성?여래장 사상은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들은 붓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닝마 (rNying ma) 전승' 속에 나타난 여래장을 주제로 발표한 도르지 왕축 교수는 “불성·여래장사상은 인도에서 발생한 이후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사상계와 티벳불교 지성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특히 불성·여래장사상이 불교적인 가르침이나, 비불교적인 가르침이냐로 티벳불교 내의 다양한 학파 안에서 수많은 논쟁을 빚었다”고 소개했다.

도르지 왕축 교수는 “이런 철학적 논쟁이 기인한 이유는 불교에서는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무아(無我)와 공성(空性)의 가르침을 주요한 철학적 내용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라며 “불성?여래장사상이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르지 왕축 교수는 “여래장과 그 안에 담긴 불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나 없음’의 경계를 뛰어넘는다”고 설명했다.

도르지 왕축 교수는 이어 인도-티벳학계의 미해결 주제인 티벳불교의 님파파와 판뜨리 전통 속에 나타나는 여래장의 철학적 함의와 그 배경을 소개했다.

도르지 왕축 교수는 티벳 고전 주석서에 입각해 “인도 대승불교는 중관파 유식, 여래장이라는 세가지 거대한 흐름으로 구성돼 있다”며 티벳인들의 세전통에 대한 통합주의적 해석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에는 오르나 알모기(Orna Almogi) 박사가 ‘판뜨리 전승 속에 나타난 여래장’을 발표했으며 4일에는 박창환 금강대 교수가 ‘보성론’에서의 자성정정심(自性正淨心) 개념에 대한 소고’를 발표했다.

《보성론》은 인도에서 불성 및 여래장 사상의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논서



금강대 인문학국 연구센터가 진행한 초청강연회서 경청하는 학생들

로 박 교수는 이전 아비달마교학에 나타난 자성정정심의 관계를 대비해서 고찰했다.

또 박보람 前금강대 HK연구교수는 ‘여래장사상의 소의경전인 《화엄경》 티벳역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중심이었던 한역 《화엄경》이 아닌 《화엄경》 티벳역에 나타나는 여래장 사상을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5일에는 김성철 금강대 HK교수가 ‘진제 의 《불성론》에 나타난 불성 개념’을 발표했으며 6일에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내 불성?여래장 팀이 그동안 진행해 온 강독 성과물인 진제의 《불성론》과 옥 로만제 람의 《보성론의요》를 강독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해군은 임란 이후 불교 중흥의 군주”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소 소장, 봉인사 제4회 기념 세미나서

조선역사에 있어 광해군(光海君)은 연산군과 함께 군으로 불린 격하된 왕이다. 용렬한 왕이라는 ‘혼군(昏君) 또는 계모와 동생을 죽인 ‘패륜아’ (悖倫兒)로 불렸지만 광해군은 명의 쇠락과 후금의 등장 및 일본의 재편과 같은 국제정세 속에 재위 15년 동안 전후 문화 복구사업을 펼친 군주였다. 이런 광해군의 불교 인식과 그 당시 불교 중흥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 눈길을 끈다.



직된 유교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불교에 유연한 정책으로 발전된다.

당시 불교계는 전란에 다수 승병이 참여하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다. 사찰의 소진 등으로 사원 재정기반은 위축돼있었다. 더욱이 승군 활동 자체로 인해 수행에 전념하지 못했던 현실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됐으며 일부 승려는 전공을 세운 후 환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와중에 광해군은 불교 선물을 진작시키는 교유 활동을 이어간다.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소 소장(동국대 교수)은 최근 남양주 봉인사에서 열린 제4회 광해군 추념 기념 학술세미나 겸 한국불교사연구소 제2차 세미나에서 광해군 시대의 불교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광해군 시대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고영섭 소장은 “광해군은 제1차 분조(分朝)시기와 제2차 무군사(無軍司) 활동을 통해 수많은 승려들의 애국심을 보여 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고 소개했다.

이 고 소장은 “국가의 지원이 끊긴 조선 시대 자신의 지원으로 일원인 봉인사를 건립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명기 명지대 교수의 ‘광해군의 대내외 정책’, 황인규 동국대 교수의 ‘임란 승병들의 유격전’, 양진근 제주대 교수의 ‘광해군의 유배생활’ 등 발표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가사보존위 창립기념 학술대회

10월 14일, 금관가사 등 조영

천태종 원각사상연구원(원장 권기중)은 10월 14일 서울 관문사 2층 대강당에서 천태종 가사보존위원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가사의 변천과 전승’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금관가사 복원과 그 제작의 정통성 및 독자성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된다.

또 천태종 25조 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가사에 내포된 의미와 역사성의 학술적 토대가 공개된다.

학술대회에서는 이봉춘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가사의 인도적 원형과 중국적 변용’, 김경숙 조계종 의제실비연구회 연구원의 ‘한국 가사의 특징’, 강선정 송광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원의 ‘조선시대 가사의 유형과 변천’, 천태종 사회국장 보광 스님의 ‘대각국사 금관가사의 특징과 전승’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천태종에서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관문사 3층박물관에서 가사전시를 개최한다. 천태종은 “한국 가사의 전통을 살피고 불교복식원형을 되살리기 위한 자리”라며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중관사상 학술대회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은 10월 20일 ‘중관사상의 원류와 변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첫 행사는 ‘유수의 상호의존적 연기설에 대한 월칭의 해석’을 주제로 남수영 동국대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며, 이태승 교수(위덕대)가 ‘후기 중관사상의 이체설 전개’를 발표한다.

신상환 교수(인도 비스바 바라티대학

인도티베트연구소)의 ‘티베트불교의 오해와 이해’, 김성찰 교수의 ‘인도 중관의 중국적 변용’, 사이토 교수의 ‘중관사상사의 재조명’에 대해 등이 각각 발표된다.

또 윤종갑 동아대 교수, 박인성 동국대 교수, 양승규 동국대 교수(불교문화연구원), 김영진 동국대 김영진 교수(불교문화연구원), 이종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이 각각 논평을 담당했다.

노덕현 기자

태풍 피해 문화재 73곳 중 불교 6곳

문화재청, 문화보고기금 지원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8월 31일 ‘8월 28일까지 태풍으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 73개소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문화재 유형별로는 국보가 1건, 보물 6건, 사적 31, 천년기념물 20건, 명승 1건, 중요민속문화재 9건, 등록문화재 5건이다. 불교문화재의 경우에는 화염사 각황전의 기와, 용마루 등 파손을 비롯해 구례 천은사 종각 기와 파손, 여수 흥국사 대웅전 용마루 기와 탈락, 익산 석불사 기와 파손 등 사찰 전각의 경우 대부분 기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익산 제석사 지 소나무 등도 피해를 입었다.

문화재로는 총6곳이다. 문화재청은 직접 관리하는 국·농의 수목 피해는 자체 기동보수단을 투입해 정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피해 가운데 경미한 피해는 자체 보수, 정비하도록 하고,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천막설치, 토사제거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피해 범위가 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문화재보호기금에서 긴급보수비를 지원해 복구할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한국정토학회, ‘정토학연구’ 제17집 발간

한국정토학회(회장 성운)는 최근 ‘정토학연구’ 제17집을 발간했다.

‘관음사상과 신앙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이번 논문집에는 다섯편의 논문이 소개됐다. △관세음보살 사상에 관한 연구(보광 스님)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 복원 불사에 관한 고찰(현고 스님) △낙산사 관음신앙의 철학적 표출(장정룡) △한국의 천수관음 신앙과 천수관음도(김정희) △

나·당 통해 관음도량, 낙산과 보타산(조영록) 등 논문이 실렸다.

또 기고논문으로 △정토교학에서의 열반과 체득(정광균) △의식시 좌립에 대한 고찰(심상현) △문화콘텐츠로 본 진관사 태극기 기념사업(이재수) △김경의 3종불성설의 체계(최은영) △자은대사기의 불신론(임향내) 등이 소개됐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국외문화재 사진 및 탐방기 공모

문화재청(청장 김찬)이 국외소재 한국 관련 문화재에 대한 대내외 관심과 애호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1회 국외문화재 사진 및 탐방기 공모전’을 연다.

공모분야는 국외소재 한국 관련 문화재(외국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미술관, 기타 민간 소장 유물 및 역사 유적지 등)에 관한 사진과 탐방기 분야 2가지다.

사진 분야는 초중등부와 일반부로, 탐방기는 초등부·중등부·일반부로 각각 구분한다.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응모 가능하다.

수상작은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1인당 5개까지 제출 가능하며 제출자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한다. 탐방기는 분량 A4 3~5매 이내로 탐방기 내용

의 70% 이상이 본인 창작물이어야 하며, 타 자료 인용 시에는 반드시 자료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수상 내역은 대상에 각 1편, 최우수상에 사진 2편 및 탐방기 3편, 우수상에 사진 2편 및 탐방기 3편, 장려상에 사진 10편 및 탐방기 9편이다. 총 31편을 선정해 시상하며 상금은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10만원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국외에는 외국 박물관·미술관 등에 약 15만여 점에 달하는 한국 관련 유물이 소장돼 있으며,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 있는 유적지도 70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국외문화재 사진 및 탐방기 공모전’을 통해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유산을 조망하는 일이 소년 민족문화유산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속 불교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어휘 중에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들을 가려뽑아 그 용례와 현대적 쓰임새, 불교적 의미와 기원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천태교학에서 바라본 반야심경

고도의 불교학박자 실천체계를 겸한 천태교학에 입각하여 『반야심경』을 진공실상과 지관수행이라는 이론과 실천의 두 줄기로 정리한 명저!

반야심경 강의

선과 뇌

선과 뇌

아리타 히데호 · 겐유 소큐 저/이성동 옮김/국판/252쪽/13,800원

반야심경 강의

반야심경 강의

반야심경 강의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뇌신경을 연구한 생리학 교수와 작가이자 선승인 임제종 승려가 과학적 실험과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풀어놓는 좌선과 명상의 효과!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